

휴켄스, 질산 품질 · 공급체계 우수!

DuPont의 우수 공급기업으로 선정 ... 2003년 희질산 점유율 70% 예상

정밀화학 핵심소재 전문기업인 휴켄스는 미국 DuPont의 우수 원자재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월21일 발표했다.

휴켄스는 DuPont이 전세계 원료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우수한 품질의 질산제품을 성실히 공급한 공로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The Supplier Recognition Award를 수상했다.

2002년 9월 남해화학의 기업분할로 설립된 휴켄스는 싱가포르에 있는 DuPont 섬유공장 등에 1994년부터 질산을 공급해오고 있다.

휴켄스는 분할 이후 2003년 40만톤의 희질산 공장을 완공하는 등 향후 5년간 약 2000억원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2003년에는 국내 희질산 시장의 70% 점유율을 확보할 방침이다.

휴켄스는 초안시장의 80%를 점유를 비롯해 DNT 90%, 톨루이딘 73% 등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냈으며 초안, DNT, 질산, 톨루이딘은 국내기업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또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한국BASF에 질산을 독점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며, Rhodia Polyamides와는 2년간 20만톤 이상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2003년에는 내화도료와 생명공학 시장에 진출할 예정으로 있어 휴켄스의 사업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매출 향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2003년 매출목표는 2300억원으로 알려졌다. <황현혜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3/25>